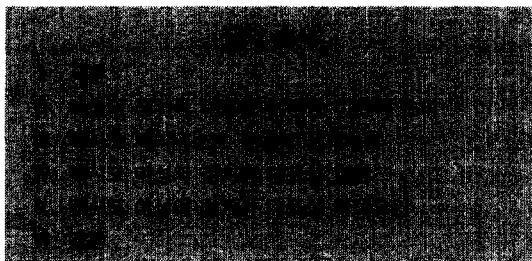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요인*

강경희(제주대학교)



I. 서론

정치과정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under-representation) 문제는 21 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현대 국가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 초의 여성참정권 운동을 통해 세계 여성들은 정치참여를 위한 형식적 권리를 쟁취하였으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실질적 영향력은 아직도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문제는 평등과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정치과정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불평등한 정책결정을 초래한다는 점, 여성 인력을 과소평가 함으로

* 이 논문은 2001년 5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요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써 인적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분배를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남성 중심의 넓은 가부장적 정치문화의 소산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파소대표성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수십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여성의 경제부문 참여율은 48.7%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현재 한국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가 3.6%(11명), 광역의회가 5.9%(41명), 기초의회가 1.6%(56명)에 불과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3-4). 2000년 제16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명)로 약간 증가했지만, 1999년 12월 기준 한국 여성의 의회진출은 세계 95위로 세계 평균 12.3%(유럽국가 평균은 35.9%, 아시아국가 평균은 13.9%)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거의 세계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에 대한 여성의 참여도 역시 저조하여 여당과 야당의 의사결정적 당무위원회 여성비율은 1997년에 각각 6.1%, 6.1%이고, 여성 지구당 위원장 비율도 각각 9.6%, 0.8%로 매우 낮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김경옥, 노혜숙, 김영란, 1999; 손봉숙, 조기숙,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국여성개발원, 1998;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편, 1990;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1).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정치를 남성영역으로, 가정을 여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사회의 성고정관념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여성의 정치적 무능력을 고집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성 자신의 문화·심리적 비하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저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정치의 그릇된 정치관행이나 정치구조의 모순이 여성의 정치진출을 꺼리게 한다는 점이다. 즉, 고비용 정치구조, 인물 중심의 정당운영, 정당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뿌리깊은 지역감정 등 기존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보면서 여성들은 정치란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어, 정당의 후보나 정치지도자로 나서기를 꺼

린다는 것이다(이영애, 2000). 세 번째 이유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¹⁾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정당들이 각종 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발굴, 육성, 공천 및 선거지원 등의 활동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38-42).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각각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해 왔지만, 현실은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세계 하위권이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본 논문은 정치과정에서 한국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결하려는 '이론적 처방과 정치적 현실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정치문화, 경제 수준, 사회적 분위기를 공유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서는 상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및 과소대표성이라는 주제로 많은 외국 사례들이 소개되었지만 대부분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성장환 외, 1997; 이범준 외, 2000). 한국보다 선진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갖는 국가들의 사례분석은 세계적 수준에서 한국 여성의 추구해야 할 정치적 대표성의 수준 및 목표를 설정하거나 중장기적 모델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의 분석은 한국이나 멕시코 등 중진국들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구조 및 역사·문화적 요소들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멕시코는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주의(machismo)적 정치문화, 권

1) 선거구제는 다수결에 따라 대표가 선출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대선거구를 전제로 군소정당에도 기회를 보장하는 소수대표제, 사표방지와 각계 각층의 대표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선거구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경우 여성의 국회진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불리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선거구제와 여성의 정치참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 1998: 35-37 참조.

위주의 정치체제의 오랜 역사, 중진국이라는 경제적 지위, 식민통치의 경험이라는 면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측면들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급속히 신장되어, 현재 하원의회의 여성비율은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고 다수의 여성장관들도 배출되고 있다. 2000년 7월 치러진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에서는 중도좌파 야당후보인 로페스 오브라도르(Manuel López Obrador)가 50%의 여성후보 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시정부의 각료 16명 중 9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획기적 인사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멕시코 여성의 성공적인 정치진출 사례가 한국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문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멕시코 폐미니스트 운동의 독특한 발전과정이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근대화 이론과 폐미니스트 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현대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멕시코의 폐미니스트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행정부, 국회, 정당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5장에서는 1990년대 들어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멕시코의 사례가 타 국가들에 주는 함의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II.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근대화 이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및 과소대표성에 대한 설명은 경제적 변수

를 강조하는 ‘근대화 이론’과 경제외적 변수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통적 정치학에서 주장하는 ‘근대화 이론’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함을 예로 들며 산업화가 진행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여성의 교육 및 경제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사회 및 정치참여도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즉, 전통사회가 산업화를 통해 근대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참여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현대 여성의 직면한 정치적 과소대표성 문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시정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apiro, 1981; 이범준, 2000: 31-32).

근대화 이론은 산업화가 여성의 교육 및 경제참여 확대에 다소 긍정적 효과를 놓는다는 면에서 부분적 설명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업화가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이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선진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여성의 그것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이미경, 임혜란, 2001: 185). 실제로 국제의회연맹(IPU)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여성의 국회참여율은 10-20%로 아르헨티나와 쿠바 여성의 국회참여율인 20-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도 일본 여성의 국회참여율이 10% 미만이고 한국 여성은 3.7%의 국회참여율을 보인 반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여성은 10-20%라는 높은 국회참여율을 기록했다(김원홍, 이인숙, 권희안, 1999: 198).

다른 한편, 산업화가 여성의 경제, 사회, 정치적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근대화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는 오히려 여성들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미숙련 노동자로 전락하게 해 여성 노동자의 주변화(marginalized)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범준, 2000: 32-33; 이미경,

임혜란, 2001: 185). 즉, 산업화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2. 페미니스트 이론들

근대화 이론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페미니스트 이론은 이를 일차적이고 핵심적 문제로 파악한다. 근대화 이론은 산업화가 진행되면 저절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리라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한 반면, 페미니스트 이론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이데올로기, 그릇된 정치사회화 패턴, 법·제도적 차원의 차별, 여성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등의 문제 해결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의 원인 및 처방에 대해 다양한 입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우선, 온건하고 개혁적인 성향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근원이 불평등한 시민권 행사와 부족한 교육기회에 있다고 보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법적 권리, 기회의 균등, 교육기회의 확대, 올바른 사회화 패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ndall, 2000: 244-256; 이미경, 임혜란, 2001: 186).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초기 주창자로는 1789년 프랑스혁명에 동참한 드 구즈(Olympe de Gouges), 영국의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9세기의 밀(John Stuart Mill), 테일러(Harriet Taylor) 등을 꼽을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교육권과 재산권 획득을 주장하였으나, 후반 들어 점차 여성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다(한국여성연구소, 2001: 281-284). 그 결과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여성 참정권을 허용하였지만, 이는 법·제도적인 형식적 평등을 의미할 뿐 실질적 성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현대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국가 및 공적 기구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존의 이론틀을 수정하여 여성 할당제 및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2) 등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한국여성연구소, 2001: 39). 한국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채택 등 선거제도 개혁이나 적극적 조치에 따른 할당제 적용 등이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는 자유주의 폐미니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손봉숙 편, 2000; 전경옥, 노혜숙, 김영란, 1999; 한국여성개발원, 1998;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편, 1990).

다음으로 '사회주의 폐미니즘'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유재산 형성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상호 영향을 미쳐 여성의 종속과 억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유럽에서 출현한 사회주의 폐미니즘은 과거의 자유주의 폐미니스트 운동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며 여성의 경제적 평등이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제3세계 여성해방에 관심 없는 선진국 여성운동에 대한 회의와 반성, 과도하게 위계적인 사회나 좌익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의 제반 지위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다. 특히 사회주의 폐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혁명이 남성에 의한 권력 혁명에 불과하며 가부장적 관계의 청산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주의 폐미니즘은 반전·반핵 평화운동 및 환경보호 운동에도 여성해방

2)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은 과거로부터의 차별로 인한 여성의 권리행사 장애요인을 교정하고, 과거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현재의 공직구조 개선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잠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 또는 현재 공직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또는 인종, 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공직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차별 철폐와 고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기업에 대해서도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자문, 지도, 권고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채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시방안으로는 ① 채용 및 승진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② 공직에서의 남녀 평등고용의 기회에 대한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 ③ 여성을 공직의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 동등하게 배치하는 방안, ④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⑤ 인사파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 ⑥ 고위직 여성 배치를 위한 승진목표제 또는 할당제를 수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권경득, 2000: 144).

적 관점을 견지하며 독자조직을 갖고 적극적인 주체세력으로 참여하였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 중심적 사고, 여성 독자조직의 설립 등을 주장하며 기존의 정치조직이나 기구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는 '자율적 페미니즘'과, 여성만의 독자 조직을 가지면서 동시에 기존 정치구조에 들어가 여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는 지난 20여 년 간 사회주의적 정당, 녹색당 및 노동조직 내에서 여성부와 여성국을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를 관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국여성연구소, 2001: 297-298).

마지막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기질·역할·지위는 사회적·환경적·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성차별의 종식을 위해서는 기존의 모성성·사랑의 개념·결혼 및 가족제도 등의 파괴를 강조하며, 주로 사적인 세계를 실천 대상으로 한다(한국여성연구소, 2001: 294-295). 이러한 인식 하에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의 원인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 정치권력을 독점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지배욕구, 가정주부나 어머니로서의 여성 역할을 주장하는 분위기 및 여론, 유권자들의 성차별 의식 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진출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통적인 성차별 정치문화 및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극복을 제기하고 있다(이범준, 2000: 37-38).

3. 페미니스트 이론들에 대한 재평가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페미니즘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저해요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문제의 처방 및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대의 정치는 공공영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가족, 성문제, 출산, 자녀교육 등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빈곤·환경·평화·정보 등이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서, 사실상 정치, 경제, 사회 간 영역 구분이 붕괴되고 있다(Randall, 2000: 31-36). 이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방법도 투표나 고위직 진출이라는 공식적 참여뿐 아니라 지역정치에 대한 일상적 주민참여나 사회단체 가입 등 비공식적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수행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분석들은 정부의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공식적, 합법적 참여에 관심을 보여왔다. 투표 참여와 고위직 진출은 여성참정권 투쟁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전통적 방법의 정치참여뿐 아니라, 정부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는 공동체 활동이나 개별 접촉, 정당 및 이익집단 활동, 경제조직이나 사회·농촌단체 참여 등에 대한 여성의 관심 및 활동이 증대되었다. 게다가 정치참여는 더욱 광의로 해석되어, 이젠 가정운동, 아동보호계획, 신도시 보조프로그램, 학교규범, 산업적 오염, 평화 등에 대한 여성의 직접적, 비전통적 정치참여 및 혁명활동, 농민폭동, 도시개발운동, 민족주의 운동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대되고 있다(Randall, 2000: 75-97).

특히, 최근 20여 년 간 라틴아메리카 몇몇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통적·비전통적, 제도적·비제도적, 직접적·간접적 방식의 여성운동들은 서로 분리되거나 충돌하기보다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페미니스트 운동들간의 상호 교차되고 혼재되는 경향은 성,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억압체계가 공존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즉, 이 국가들에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농촌개발운동, 도시빈민 운동,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해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려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가정과 사회 등 사적 정치영역에서 성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평등 요소를 생

활정치로서 극복하려는 급진적 페미니즘 등이 상호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스트 운동의 경향은 현대 사회에서 정치 개념의 확대와 정치참여 방법의 다양화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의 경향들이 멕시코 여성운동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최근 20여 년 동안의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분석은 선거제도 및 여성후보 할당제 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도시빈민 운동 및 농촌계릴라 투쟁을 강조하는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III. 멕시코 페미니스트 운동의 전개과정

1.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운동(1910-53)

멕시코의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1910-17년 멕시코 혁명을 계기로 촉발되어 1953년 참정권을 획득하는 시기까지 40여 년 이상 지속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멕시코 여성의 정치참여는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통적 인디오 문화와 보수적 카톨릭교회가 여성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갖지 못했다. 멕시코 최초의 여대생은 1882년 침든 투쟁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허가를 얻어낸 마틸데 몬또야(Matilde Montoya)였다(Monsiváis, 1994: 20).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교육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1904년 3명의 여학생이 멕시코시티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최초의 여성변호사가 탄생하였다.

1911년에는 지방에서만 100명의 여교사, 5명의 내과 여의사, 2명의 치과 여의사, 1명의 여성변호사와 1명의 여성화학자가 배출되었다 (Espinosa C., 1998: 64-65).

멕시코 여성들의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은 1910-17년 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군인, 장교, 간호사, 비밀요원 등의 활동을 통해 멕시코혁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정치·사회·문화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Verea, 1998: 28-29). 당시 가장 대표적인 여성 혁명가는 후아나 마리아(Juana María Gutiérrez de Mendoza, 1875-1942)로서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 하며 여성인민동지정치클럽(Club Político Femenil Amigas del Pueblo)을 창설하였고, 1911년에는 싸뻬따(Emiliano Zapata)가 이끄는 멕시코 남부지역 유격대의 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Monsiváis, 1994: 20-21). 혁명과정에서 멕시코 여성의 획득한 최초의 결실은 1915년 10월 28일 유까딴(Yucatán) 주의 메리다(Mérida) 시에서 개최된 ‘제1차 페미니스트회의’였다. 유카탄의 주지사 알바라도 (Salvador Alvarado)에 의해 소집된 ‘제1차 페미니스트회의’에서는 617명의 여성이 참여해 여성의 인격적·법적 평등 및 교육의 권리 등을 주장했다.

멕시코 여성의 참정권 투쟁은 에르밀라 갈린도(Hermila Galindo)라는 여성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에르밀라 갈린도는 멕시코 혁명이 종결된 무렵에 촉발된 1916-17년의 제헌의회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정치적 평등 조항을 1917년 헌법에 삽입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좌절되었다. 당시 제헌의회 의원들은 “여성들은 가정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제헌의회 의원들이 여성의 참정권 부여를 반대한 실질적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즉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한다면 보수적인 카톨릭교회나 반혁명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편견과,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다면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성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전통적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헌의회의 여성 참정권 부결에 대해 에르밀라 갈린도는

“모든 개인은 법과 국가 앞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여성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올바른 정의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917년 헌법은 남성과 동일한 여성의 정치적 의무만 부여하면서 정치적 권리의 부정하는 미흡하고 부분적인 평등주의를 지향한다”고 비판했다(Cano, 1996: 154-157).

1916-17년 참정권 투쟁이 실패로 끝나자, 에르밀라 갈린도는 대중 선거에 여성후보를 출마시킴으로써 현행법 규정에 도전하는 투쟁전략을 채택했다. 1918년 여성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선거법이 통과된 직후, 에르밀라 갈린도는 여성 참정권 요구를 위한 대중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최초의 여성후보 출마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위해 멕시코시티 연방선거의 지역구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Cano, 1996: 157). 1923년 5월에 ‘제1회 전국페미니스트회의’가 개최되자 여성참정권 문제가 재차 제기되며 여성후보의 지방선거 후보 출마가 결정되었다. 여성의 투표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나, 이와 같은 여성후보 출마전략은 멕시코 여성의 투표권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³⁾

1920년대 여성후보 출마전략을 통한 여성참정권 투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 까르데나스 대통령(Lázaro Cárdenas, 1934-40) 집권기인 1937년에 거의 수용되기에 이르렀지만 다시 한번 좌절되었다.⁴⁾

3) 여성후보 출마전략의 결과, 1924년 선거에서 엘비아 까리요(Elvia Carrillo Puerto)가 산 루이스 뽀또시(San Luis Potosí) 주의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멕시코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엘비아는 정치적 압력과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2년 후 사임했다(PRONAM, 1997: 16-17).

4) 혁명정권이 여성의 참정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20년대 말 대통령 선거유세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혁명정권에 의해 1929년에 창당된 민족혁명당(PNR, 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은 멕시코 여성의 시민적 활동을 점진적으로 돋고 고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재선반대당(Partido Antireeleccionista)은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여성의 참정권 부여를 정당강령에 포함시켰다.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1929년 선거유세에서 국가 역사상 최대의 여성시민

1931월 11월 20일, 멕시코 혁명 발발 21주년을 맞아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포함되는 실질적 선거권(Sufragio efectivo)'을 주장하며 혁명여성블록(Bloque de Mujeres Revolucionarias)을 결성하였다. 혁명여성블록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수세력과 카톨릭교회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통적 편견에 대해, 의회 내에는 이미 다수의 남성 보수주의자와 카톨릭 대변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보수주의와 카톨릭주의는 여성을 올바른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견인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공박했다.

그러나 의회는 혁명여성블록의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단지 정부여당인 민족혁명당(PNR: Partido Nacional Revolucionario, 제도혁명당의 전신)의 일부 지도자들만이 당의 정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까르데나스는 대통령 선거전 중인 1934년 여성전문인, 여학생, 주부, 여성소작농 등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민족혁명당내에 여성부를 신설하고, 페미니스트혁명당(Partido Feminista Revolucionario)과 멕시코여성연맹(Confederación Femenil Mexicana)이라는 여성조직들을 결성하였다.⁵⁾ 다른 한편, 이듬해에는 공산주의 혜게모니 하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는 여성들의 정치동맹인 '여성의 권리를 위한 유일전선'(Frente Único Pro-derechos de la Mujer)이 결성되어 여성의 투표권 확보, 여성의 시민권 보호, 아동 보호, 도시와 농촌에 학교·탁아소·병원 건립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여성단체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참정권 쟁취'라는 동일한 구호 아래 결집되어 있었다(Cano, 1996: 158-159).

멕시코 여성의 투표권은 1937년 들어 거의 확보되는 듯 보였다.

동원화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비록 여성들이 시민권은 없지만 하나의 강한 정치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Cano, 1996: 158).

5) 까르데나스 정부의 여성정책에 힘입어 솔레 datum 오로스코(Soledad Orozco)라는 여성정치인이 과나후아또(Guanajuato) 주에서, 그리고 마리아 델 레푸히오(María del Refugio García)가 미초아깐(Michoacán) 주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같은 해 9월 까르데나스 대통령은 “… 멕시코의 민주주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공고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여성참정권 부여이다”라고 밝히며, 헌법 제34조를 개정해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안을 상원의회에 제출했다. 까르데나스 대통령의 개정안은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지방의회에서 개정안 논의를 대통령의 임기 말기까지 끌면서 여성참정권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PRONAM, 1997: 17-18).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보수적 정치성향의 까마초(Manuel Ávila Camacho, 1940-46)는 “여성참정권은 멕시코 여성의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게 할 것이며, 게다가 여성 스스로가 공공생활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다”며 까르데나스의 헌법 34조 개정안을 원천적으로 거부했다(Cano, 1996: 164-165).

194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멕시코 여성의 경제참여와 교육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지만, 여성의 참정권은 여전히 담보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권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멕시코 여성의 참정권투쟁은 1910-17년 혁명 후 지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여 년이 지나서야 종결되었다. 1946년 12월 24일 하원의회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여성참정권 부여를 포함하는 알레만(Miguel Alemán)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듬해 2월 12일 공포될 이 개정안은 “여성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1952년 4월 6일, 당시 정부여당인 제도혁명당(PRI,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대통령 후보 꼬르띠네스 (Adolfo Ruiz Cortines)는 20,0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한 집회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것을 밝혔다. 그 결과, 이듬해 10월 17일 개정된 헌법 제34조는 “남성과 여성은 공화국 시민이다. 기혼자의 경우 18세 이상, 미혼자의 경우 21세 이상의 건전한 삶을 영유하는 멕시코인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PRONAM, 1997: 19).

그러나 1953년 멕시코 여성의 참정권 쟁취는 민주주의의 확대 및 남녀평등의 실현과는 다소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까르데나스 대통령

이 1930년대에 여성참정권 확보가 멕시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한 반면, 꼬르띠네스 대통령은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가정에서 변함 없는 주부이자 어머니이므로 남성들은 ‘기사도정신’(caballerosidad)을 발휘해 여성에게 참정권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Cano, 1998, 230).

어떤 이유로든지 여성참정권의 확보 결과, 1954년 멕시코 연방선거에서 최초의 여성하원의원이 선출되었고, 1963년 여성 2인이 최초의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1961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배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란 더럽고 부패한 것이며 여성들의 삶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라는 의식이 여성들 사이에 팽배했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문화가 멕시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다(Poncela, 1996: 13-15).

당시 멕시코 여성의 경제참여는 가사노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즉, 여성의 사회적 노동은 남성이 가정의 경제력을 지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고, 그럴 경우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무리하게 겸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내나 자녀에 대한 남편의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낙태는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강간당했을 경우 이외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년에 수백만 건이나 발생하였다. 피임은 1973년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듬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계획장려법이 제정되면서 허용되었다(Verea, 1998: 29-30).

2. 민중적 사회주의 패미니스트 운동의 발전과 분화(1968-1985)

멕시코의 민중적 사회주의 패미니스트 운동은 1968년의 ‘멕시코 68항쟁’을 계기로 시작되어, 1970년대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 적극 참

여하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모색하였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도시민중운동과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중적 지지를 확보하였다.

'멕시코 68항쟁'은 1968년 7월 30일 시작된 학생운동을 계기로 발생했다. 당시 멕시코의 대학생들은 제도혁명당(PRI)에 의해 구축된 전통적 권위와 규율을 반대하고, 교육제도 개선 및 대학의 자율성 쟁취를 주장하며 학내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일 틀라엘루꼬(Tlatelolco)의 삼문화광장(Plaza de las Tres Culturas)에서 군대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300명 이상이 사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대학 충돌로 시작된 '멕시코 68 항쟁'은 정부-시민사회의 본격적 대결로 확대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다(Peña, 199: 204-212).

'멕시코 68항쟁'이 발생요인은 제도혁명당의 일당독재에 대한 지식인층의 불만과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한계로 인한 중하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합되어 발생했다.⁶⁾ '멕시코 68항쟁'에 참여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혁명 후 고착화된 개인추종주의, 정실주의, 후견주의의 정치문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폐미니스트들도 이에 적극 참여했는데, 크게 두 개의 노선으로 갈려있었다. 우선, 1970년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범여성운동(movimiento amplio de mujeres)은 1980년대 들어와 '민중적 사회주의 폐미니스트' 운동으로 발전한 여성운동 노선으로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빈민촌의 주부모임, 인디오단체, 농민단체, 비정부 여성단체, 좌파정당 등 의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6) 1940년대 이후 30여년 간 시행된 멕시코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고도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안정적 발전'(desarrollo estabilizador) 시대를 가능하게 했지만 1960년대 말에 들어 그 잠재력이 소진되기 시작했다. 멕시코 수입대체산업화의 위기는 내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 생산, 선진국에 대한 기술 및 자본 종속, 국내저축의 감소와 직접투자 및 차관의 증대에 따른 수지적자의 심화, 농업부문의 식량자급 실패, 소득과 부의 편중된 분배 등으로 나타났다(이성형, 1999: 41-44).

반면 서유럽의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일부 멕시코 여성 운동가들은 네오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멕시코의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을 주도하였다. 멕시코의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은 소수 그룹의 여성들에 의해 이끌어졌지만 다른 사회단체의 활동과는 별도로 여성의 독립적인 정치운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과 차별성이 있었다. 두 개의 페미니즘 노선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남녀 성 차별의 원인을 비대칭적 정치권력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에서 유래된다고 본 반면,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 불평등 구조의 근본 원인이 남녀간의 생물학적 성차이, 전통적인 성차별 정치문화 및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식의 차이와 함께, 멕시코의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점차 사회주의적 좌파혁명주의나 자유주의적 의회주의 노선으로 발전된 반면,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은 사적 영역이나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반(反)문화 투쟁을 강조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은 사회의 광범위한 민주화와 근본적인 정치의식 개혁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여 남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으나, 극소수 중산층 여성의 참여에 의존한다는 점과 개인생활 영역의 변화에만 집착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두 노선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즘 노선은 계급적, 사회경제적 운동을, 급진적 페미니즘 노선은 정치문화적, 여성심리적 차원의 개혁 운동을 각자 진행해 나갔다(Espinosa, 1998: 176-177; Staudt, 1998).

1970년대의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멕시코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한 급진적 노선을 표방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⁷⁾에 따른 10여 년 간의 경기침체의

7)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1982년에 정부가 외채지불증지 선언을 발표한 후 국내 경제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IMF의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10여 년 간 제로 성장을 경험해야 했고 현재까지 주기적인 외환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정치운동은 파우메목 까르데나스

결과 광범위하게 확산된 빈곤층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노선으로 변화되었다. 이들은 멕시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피폐해진 빈곤층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도시민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와 같은 운동 경향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공통적 현상인 바, 각 국의 민중적 사회주의 폐미니스트들은 경제적 피폐, 빈곤층의 불만,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 등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세력을 결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중적 사회주의 폐미니스트들과 여타 사회·정치세력들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빈민층·극빈층의 빈곤문제 해결을 목표로 긴밀히 결합될 수 있었다. 할라빠(Xalapa)와 베라그루스(Veracruz) 시의 사례연구를 보면, 농산품 가격의 하락, 특히 주변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커피 가격의 하락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부추겼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는 노동력의 과잉공급을 가져왔으며 경제위기의 여파와 아울러 도시의 노동조건은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농촌에서 유입된 엄청난 이주민들은 비숙련 노동자로 도시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 극빈층을 형성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에는 도시 빈곤층의 생활조건 개선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민중조직인 '베라그루스의 소작인, 세입자, 주택청약자 연합'(Unión de colonos, inquilinos y solicitantes de vivienda de Veracruz)이 결성되었다. 이 연합 활동가의 상당수는 여성었고, 주된 요구는 주택, 또르디야 보조금(tortibonos), 교육비품 등의 확보였다. 1988년에 이 연합은 보건, 기술, 식료품, 정치 등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각각의 위원회들은 향후 수행하고 달성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매주 모임을 가졌다. 같은 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 선거를 맞아 이 연합은 정당활동에 직접적 방법으로 참여하지는

의 민주혁명당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노선파, 신자유주의 정책의 피폐해진 인디오와 농민의 삶 속에서 반(反)정부운동을 전개하는 민중적 노선으로 나뉘고 있다.

않았으나, 선거투쟁이 민중부문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에두아르다 카르포스(Eduarda Campos), 라라(Lala) 등을 개별 회원 수준에서 연방의회 후보로 내세웠다. “신까르데나스주의”(neocardenista)라 불리는 새로운 선거참여 노선의 등장 이후, 일부 민중적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들과 ‘베라고루스의 소작인, 세입자, 주택청약자 연합’의 노선도 약간의 변화를 보여 1990년에는 “더 이상 점유, 시위, 건물점유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연합의 공고화 단계에 합당한 합법적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임을 표명했다. 도시민중운동 노선을 추진하던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문제에 대한 자료 수집, 그 주제에 대한 연구 심화, 학계에 종사하는 인사들 및 다양한 독립 조직에 소속된 공동체 활동과의 관계 심화 등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Guadarrama Olivera, 1994: 187-197).⁸⁾

3.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 운동⁹⁾의 재등장과 발전(1986-현재)

1980년대 중반 들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법적·제도적 개혁 및 선거와 투표 방식을 통해 민주정권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1953년 여성참정권 쟁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정치진출과 정치적 대표성은 계속 저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 8) 다른 한편으로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일부는 치아빠스(Chiapas) 주를 비롯한 멕시코 남부 농촌지역의 소외된 인디오들과 농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을 전개시키고 있다(Roja, 1999).
- 9)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사상적 기반 하에 1980년대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전개하다가 1987년 중도좌파 대통령 후보인 파우메목 까르데나스(Cuauhtémoc Cárdenas)에 대한 비판적지지 노선으로 선회한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즘 노선과 동일한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는 여성운동 세력을 말한다. 전자는 주로 중도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PRD: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에서, 후자는 주로 제도혁명당(PRI)이나 국민행동당(PAN: Partido Acción Nacional) 등에서 활동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할당제 등이 유효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일부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페미니즘 노선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페미니즘이 점차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10-17년 혁명 후 집권당의 지위를 한번도 양보하지 않는 제도혁명당(PRI)의 종식이 맥시코 정치발전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68항쟁’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된 급진적 민주화 투쟁은 결국 제도혁명당 집권을 종식시킬 수 없었다는 사회세력들의 자아비판이 선거를 통한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될 수 있게 했다. 또한 1970년대 혁명적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민중들은 체제 내로 영입되는 주도적 사회주의 인사들을 보면서 ‘혁명을 통한 이행’의 가능성을 비판하게 되었다는 점도 선거를 통한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상당한 수준의 정치진출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여타 중도좌파 세력들과 연대하여 파우메목 까르데나스(Cuauhtémoc Cárdenas)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전에 적극 참여하였다(Stevenson, 1998: 204-205).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렵게 패배했으나, 파우메목 까르데나스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정당인 민주혁명당(PRD: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창당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정당활동 및 공식적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사실상 민주혁명당에서 여성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어, 당 최고기구인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1990년에 20%, 1994년에 23.8%를 차지했다 (Poncela, 1996: 13-15). 1980년대 말에 부상하기 시작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진출은 199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해졌다. 여성들은 정부각료, 상·하원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지사, 시장 등 모든 정치분야로 진출하였다.

IV.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1. 행정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 중 자유주의적 성향의 여성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도좌파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좌우폐목 까르데나스의 정치적 약진과 민주혁명당 창당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민주혁명당을 발판으로 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진출은 제도혁명당(PRI)이나 국민행동당(PAN) 등 여타 정당에서 점차 영향을 미쳐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할 것이며, 우선 본 장에서는 최근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행정고위직, 국회, 정당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행정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멕시코에서 여성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단지 3명의 여성이 몇몇 군소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1988년 선거에서 노동자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 los Trabajadores) 후보인 로사리오 이바라(Rosario Ibarra de Piedra), 1994년 선거에서 노동자당(Partido del Trabajo) 후보인 세실리아 소또(Cecilia Soto)와 사회주의민중당(Partido Popular Socialista)의 후보 마르셀라 룸바르도(Marcela Lombardo) 등이 그들이었다.

행정부 각료직에서는 1958년에 최초로 여성이 교육부(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1970년에는 외무부(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의 공식 대표로 여성이 선출되었다. 최초의 여성장관은 1981년에 로페스 뽀르띠요(López Portillo) 대통령이 임명한 로사 루스(Rosa Luz Alegría) 관광부(Secretaría de Turismo) 장관이었다. 그 후 1988년 1명, 1994년 3명, 1998년 2명의 여성이 행정부 각료로 임명되었다(Poncela, 1996: 14-15). 특히, 세디요 정부 하에서 장관을 역임했던 로사리오 그린(Rosario Green)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외무장관을 맡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정부에서 여성의 참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우호적인 민주혁명당(PRD)이 1994년 이후 두 번이나 시장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다. 파우메목 까르데나스가 200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시장직을 로사리오 로블레스(Rosario Robles)라는 여성에게 이임함으로써 멕시코시티에서 최초의 여성시장이 탄생했다. 2000년 7월 치러진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에서는 민주혁명당 후보인 로페스 오브라도르(Manuel López Obrador)가 50%의 여성후보 공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취임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시장은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시정부 각료 16명 중 9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획기적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9명의 여성각료들은 도시발전 및 주택부의 라우라 잇셀(Laura Itzel Castillo), 교통 및 도로부의 제니 살띠엘(Jenny Saltiel Cohen), 환경부의 끌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Pardo), 사회발전부의 라겔 소사(Raquel Sosa Elizaga), 보건부의 아사 크리스티나(Asa Cristina Laurell), 관광부의 홀리에따(Julieta Campos), 사회매체부의 아나 릴리아(Ana Lilia Cepeda)와 총회계 1명, 법률서비스 고문 1명 등이었다.

2. 여성의 국회참여 현황

IPU(국제의회연맹)의 200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멕시코 여성의 국회참여율은 상원이 15.6%, 하원이 16%로 세계 39위, 라틴아메리카의 5위를 점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회참여율을 보이는 국가는 쿠바로서 27.6%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로서 26.5%의 국회참여율을 보이며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29위의 코스타리카, 세계 38위의 도미니카공화국, 세계 39위의 멕시코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표 1>.

〈표 1〉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국회참여율

세계순위	국가	하원의회 선거 의석 여성 여성%	상원의회 선거 의석 여성 여성%
12	쿠바	1998 601 166 27.6	
15	아르헨티나	1999 257 68 26.5	1998 72 2 2.8
29	코스타리카	1998 57 11 19.3	
38	도미니카 공화국	1998 149 24 16.1	1998 30 2 6.7
39	멕시코	2000 500 80 16.0	2000 128 20 15.6
57	칠레	1997 120 13 10.8	1997 48 2 4.2
28	북한	1998 687 138 20.1	
91	한국	2000 273 16 5.9	

<출처: <http://www.ipu.org>, 2001년 4월 25일 자료>

멕시코 여성의 국회참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53년 여성의 투표권이 부여된 후 1954년 하원의회 선거에서 여성 1인이, 1963년에는 상원의회 선거에서 여성 2인이 당선되었다. 그 후 1982년 로빠스 뽀르띠요 집권기까지 여성의 국회참여율은 1자리 수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는 10-11%대로 상승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여성의 국회참여율은 15-16%대로 증대되었고 이 수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표 2>.

멕시코 여성의 정당별 국회참여율을 살펴보면, 상원의회의 경우 민주혁명당(PRD)이 거의 20%로 가장 높은 여성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제도혁명당(PRI)이 약 16%이고, 국민행동당(PAN)이 가장 낮은 8%대를 보이고 있다. 하원의회의 경우도 민주혁명당이 24%를 상회하는 여성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제도혁명당은 16% 정도, 국민행동당은 10% 정도의 여성참여율을 보이고 있다<표 3>.

〈표 2〉멕시코 여성의 국회참여율, 1952-2000

대통령 임기 대통령	남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비율)	합계(비율)
1952-58 Adolfo Ruiz Cortines	161(99.4) 156(97.5)	1(0.6) 4(2.5)	162(100) 160(100)
1958-64 Adolfo López Mateos	154(95.0) 176(95.1)	8(5) 9(4.9)	162(100) 185(100)
1964-70 Gustavo Díaz Ordaz	197(93.8) 198(94.2)	13(6.2) 12(5.8)	210(100) 210(100)
1970-76 Luis Echeverría	184(93.4) 212(91.1)	13(6.6) 19(8.9)	197(100) 231(100)
1976-82 José López Portillo	215(91.1) 368(91.0)	21(8.9) 32(9.0)	236(100) 400(100)
1982-88 Miguel de la Madrid	358(88.5) 358(88.5)	42(11.5) 42(11.5)	400(100) 400(100)
1988-94 Salinas de Gortari	441(88.2) 455(91.2)	59(11.8) 44(8.8)	500(100) 499(100)
1994-2000 Ernesto Zedillo	426(91.2) 426(85.8)	70(14.11) 87(17.4)	496(100) 500(100)
합계	4,472(90.3)	476(9.7)	4,948(100)

<출처: PROMAN 1997, 231, 표 1에서 재인용>

〈표 3〉정당별 여성의 국회참여율

	PAN(국민행동당)	PRI(체도혁명당)	PRD(국민행동당)
정당별 여성 상원의원 비율			
1994	2명(7.69%)	14명(14.74%)	1명(12.5%)
1997	3명(9.40%)	14명(18.40%)	4명(26.7%)
정당별 여성 하원의원 비율			
1994	10명(8.47%)	42명(14.09%)	17명(24.29%)
1997	15명(12.40%)	44명(18.40%)	30명(24.00%)

<출처: INEGI, <<http://www.inegi.gob.mx>>>

3. 정당별 여성참여 현황

정당별 당원비율을 보면, 제도혁명당(PRI)의 경우 40%가 여성이다. 그러나 당 최고조직인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1980년대에는 평균 10% 정도에 머물다가, 1990년대 들어 15%-20%를 차지하고 있다<표 4>. 국민행동당(PAN)의 경우도 40%의 당원이 여성인데 반해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1980년대 10% 대에서 1990년대 10-25% 다소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표 5>. 당원의 48%가 여성인 민주혁명당(PRD)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매우 높은 여성 참여율(30-40%)을 보여주고 있다<표 6>.

〈표 4〉 PRI 전국집행위원회의 여성참여율(1980-1993)

	여성참여율
1980-81	7.69
1982	6.25
1983-86	13.33
1987-88	11.76
1989-90	13.64
1991	0.00
1992	20.00
1993	16.13

<출처: INEGI, <<http://www.inegi.gob.mx>>>

〈표 5〉 PAN 전국집행위원회의 여성참여율(1980-2000)

	여성참여율(%)
1980-81	3.33
1982-83	8.11
1984-86	6.67
1987-90	15.5
1991-92	15.63
1993	9.37
1994	25.00
2000	20

<출처: INEGI, <<http://www.inegi.gob.mx>>>

〈표 6〉 PRD 전국집행위원회 여성참여율(1990-2000)

	여성참여율
1990-91	20
1992-94	23.81
1998	41.18
2000	33.33

<출처: INEGI. <http://www.inegi.gob.mx>>

1990년대 들어서 두드러진 양상은 여성이 정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경우 1994년 마리아 멜 로스 앙헬레스(María de los Ángeles)가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민주혁명당의 아말리아 가르씨아(Amalia García Medina)는 3회에 걸쳐 당내 선거를 통해 당대표로 임명되기도 했다(Sonia del Valle, 2000: 13-15).

V.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요인

1. 폐미니스트 운동 · 도시민중운동 · 민주혁명당의 결합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행정부, 국회, 정당을 막론하고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요인은 폐미니스트 운동 · 도시민중운동 · 민주혁명당(PRD)의 결합, 민주혁명당 여성우대정책의 확산 효과, 살리나스와 세디요 대통령의 여성우대정책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8년 이후 발전된 사회주의 폐미니스트 운동은 점차 도시민중운동에 개입하는 민중적 노선과 민주혁명당 창립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자유주의적 노선으로 분화되며 대중적 지지와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엘리트 위주의 전위적 성격을 극복하지 못했

던 멕시코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도시민중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범위한 도시 여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도시민중운동 속에서 성장한 비판적 대중(*masa crítica*)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약 10여 년 간에 걸쳐 다양한 성격의 사회단체들이 도시민중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도시민중운동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11월 26일 도시민중운동 산하의 제1차 전국여성회의가 실현되면서부터이다. 이 회의를 통해 여성들은 도시민중운동에 대한 소극적 참여의 수준을 넘어 가사노동의 분담, 평등한 부부관계, 가정 폭력 방지 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조직화를 추진했다(Espinoza Damián, 1992).

도시민중운동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사례는 1985년 멕시코시티 대지진의 복구과정이었다. 대지진 후 멕시코시티 복구과정은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도시민중운동의 소속단체들은 제도혁명당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주택과 사회간접자본을 분배할 것을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당시에는 제도혁명당에 속해 있었던 파우메목 까르데나스는 도시민중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파우메목 까르데나스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지 못하여 제도혁명당을 탈당하고, 중소 좌파정당들 및 세력들을 모아 민주혁명당(PRD)의 전신인 민족민주 전선(FDN: Frente Democrática Nacional)을 결성했다. 비록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으나 민주혁명당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정당이미지를 구축하며 멕시코의 3대 정당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민중적 노선이 도시민중운동의 결합을 통해 페미니스트 운동이 전위적 성격을 극복하고 대중적 성격을 확보했다면,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민주혁명당간의 결합은

여성이 정당 고위직이나 국회대표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혁명당이 새로운 정치스타일과 정당이미지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창당 초기에는 전통적 정당체제를 고수하는 내부 보수세력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에 참여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진출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대통령 선거과정 및 민주혁명당 창당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파우메목 까르데나스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던 이들 페미니스트들은 민주혁명당이 창당된 후인 1991년 제1차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임원직 여성이 최소 20%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년 후 제2차 전당대회에서는 전국집행위원회에서 30% 여성 할당제를 내규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1994년 들어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23%의 비약적 상승세를 보였다(Stevenson, 1998: 204-205).

2. 민주혁명당 여성우대정책의 확산효과

새로운 정치문화와 정당스타일을 추구하는 민주혁명당(PRD)의 여성우대정책은 보수적 정당체제를 고수해 온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의 여성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미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좌파정당과 녹색당의 진보적 여성우대정책이 여성유권자의 지지 확대에 성공함에 따라 타 정당에서도 경쟁적 여성우대정책을 유발시키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있다는 점이 주장되어 왔는데, 멕시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혁명당은 1993년 제2차 전당대회의 결과 당규약 제8조에 “남/여 불문하고 어떠한 성이라도 대중선거나 당의 지도조직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995년의 민주혁명당 전국여성회의에서는 당규약 3조 20항에 여성위원회 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이 제기된 후, 이듬해 민주혁명당 내에 여성부(*Secretaría de la Mujer*)가 탄생했다. 여성부는 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모색하고 당 내 여성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

여당의 내부적 결속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당 여성부의 출범을 계기로 중앙당의 차원을 벗어나 주나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의견을 결집하고 여성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전국집행위원회의 30% 여성 할당제는 주와 지방자치의 차원으로 확산되었다.¹⁰⁾

제도혁명당(PRI)은 이미 1987년에 여성통합이사회(Consejo de Integración de la Mujer)라는 여성조직을 결성하였으나 이는 전통적인 조합주의 통치체제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3년에 결성된 ‘변화를 위한 여성회의’(Congreso de Mujeres por el Cambio)는 여성당원의 능력과 여성후보자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마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María de los Ángeles Moreno)와 마리아 엘레나 차빠(María Elena Chapa) 등 유력한 여성 정치인을 배출해내기도 했다. 또한 제도혁명당은 민주혁명당이 30% 할당제를 공포한 직후에 선거 입후보자 공천시 최소 30%의 후보를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 내규로 채택했다(Castellanos, 1999: 9-11).

카톨릭교회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해왔던 국민행동당(PAN)도 상대적으로 더디기는 하지만 점차 진전된 여성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행동당의 여성정책은 주로 대중선거에서 여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1990년대부터 여성의 정치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민행동당의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중은 1978년 2명(3%)에서 1990년 17.9%, 1993년

10) ‘할당제’(La Ley de Cupo)는 1970년대 유럽의 좌파와 환경론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다가 1990년대 들어 모든 정치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여성대표가 모두 여성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성단체와의 협력 하에 새로운 의제를 구상하고 새로운 정치형태 및 정치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긴 하지만, 남성우위의 정치문화 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할당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로서 몇몇 정당에서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모든 정당은 당선 가능 지역에서 30%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라는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할당제 실시 결과 1980년대에 4%에 머물렀던 여성의 대표성이 1993년 21%, 1995년 29%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Staudt, 1998: 78-79).

14%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크게 확대되었다 (Stevenson, 1998: 210-211)

3. 살리나스와 세디요 정부의 여성우대정책

정당의 여성우대정책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더욱 촉진시킨 요인은 살리나스와 세디요 정부의 여성우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부정선거 시비에다 근소한 차이로 집권한 살리나스 대통령은 집권 후 제한적인 정치자유화 조치를 실시했다. 살리나스 정부 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여성정책은 1993년 '연방선거제도 및 선거과정법'(COFIPE: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발표시 제의한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30% 할당제였다. 살리나스 대통령이 정당의 여성후보 할당제를 제의하자, 민주혁명당은 1993년 10월의 대중선거와 당임원 선출에서 여성후보 30% 공천을 재빨리 시행했다(Bassols, 1998: 292-293).

세디요 대통령은 전임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우대정책을 시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여성정책은 '1995-2000년 전국여성프로그램'(PRONAM: Programa Nacional de la Mujer 1995-2000)에서 엿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비정부기구, 학계, 상·하원의회 소속 여성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육·의료보전·빈곤·고용·노동에 대한 여성의 권리 확보, 직업 및 생산기술에서 여성의 훈련, 남녀의 가사노동 분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방송매체의 문화개혁을 통한 남녀평등 이미지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섯 가지 활동지침이 수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학술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수립, 둘째, 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의 개선, 셋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넷째, 여성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할당 보증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여성평등 촉진, 다섯째, 모든 부분의 책임을 모니터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세디요 정부의 여성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1996년의 선거법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은 정당들이 동일한 성의 70% 이상을 대중선거 후보로 공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선거법 개정에 힘입어 멕시코의 여성들은 1997년 7월 총선에서 전례 없이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상원의회 선거에서는 민주혁명당의 아말리아 가르씨아(Amalia García), 국민행동당의 아나 로사 빠얀(Ana Rosa Payán), 제도혁명당의 마리아 텔로스 양헬레스 등을 포함한 19명(14.8%)의 여성이, 하원의회에서는 87명(17.4%)의 여성이 선출되었다. 상·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여성들은 여성관련법 개정,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업무 수행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국회 내에 '성평등위원회'와 '여성의회'를 결성했다. 두 조직은 여성의원이 소속정당의 이념 여부를 떠나 여성 일반의 권리 증진을 위해 초당적 여성연합 전선을 형성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디요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은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제4차 UN 세계여성회의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이행이란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98년 8월에는 국무부(Secretaría de Gobernación) 산하에 전국 여성위원회(CONMUJER: Comisión Nacional de la Mujer)가 결성되어 행정부 차원의 여성조직이 출범하기도 하였다(Castellanos, 1999: 9-11).

V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지난 10여 년 간 급속한 진전을 보여왔다. 본 논문은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요인으로서, 1968년 이후 시작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1980년대 도시민중운동 및 민주혁명당 창당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진출을 위한 정당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민주혁명당의 여성우대정책

이 1990년대 들어 다른 정당들로 계속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살리나스와 세디요 정부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법·제도상의 제반 조치들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멕시코의 사례가 타 국가들에게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의 함의는 엘리트주의적이고 전위적인 여성운동보다는 비판적 대중(masa crítica)의 확고한 지지에 기반한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멕시코 여성의 조직화 및 정치세력화에 유용했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민중적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1970년대 혁명적 민주화 투쟁에 독자적 세력을 이루며 참여했을 뿐 아니라,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라 피폐해진 농민, 인디오, 도시빈민 등 민초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여성들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두 번째 함의는 멕시코의 경우, 자유주의적 성향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민주혁명당(PRD)의 창당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정당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단지 여성정치인의 수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리타분한 정치관행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공명정대한 새로운 정치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함의는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신생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의 창당과 발전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비록 파우메목 까르데나스가 구여권 정치인 출신이라는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민주혁명당은 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해 당의 지도자로 육성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살리나스 정부가 제의한 30% 공천할당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주혁명당의 여성우대 정책은 제도혁명당이나 국민행동당의 여성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멕시코 여성의 정치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선거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민주혁명당에서 여성들의 정치활동은 멕시코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제도혁명당의 폐권정당체제보다는 경쟁적 다당제 하에서 민주혁명당과 같은 새로운 운영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의 존재는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데 주효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살리나스 정부가 각 정당 여성후보 공천 30% 할당제를 제의하거나, 세디요 정부가 정당후보 공천시 30% 여성할당제 조항이 포함된 선거법을 발표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 여성우대정책도 멕시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즉, 멕시코의 경우 폐미니스트 운동의 대중적 지지 확보 및 여성의 정치진출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민주혁명당의 창당 등 아래로부터의 움직임뿐 아니라,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려는 위로부터의 정부 의지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요약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멕시코 사례가 타 국가들에게 주는 함의는 비판적 대중에 기반한 폐미니스트 운동의 확산,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탈피한 새로운 정치성향의 민주적 정당의 출현, 그리고 법·제도적 개혁을 포함한 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적극적 여성우대 정책 등이 여성의 정치진출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 선거를 맞아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이 정당후보 공천시 여성할당제 도입 및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의 확립 등 위로부터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단순히 여성의원 및 고위직 여성의 수적·양적 증대가 아니라, 정치발전 및 민주주의 공고화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려 한다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뿐 아니라 비판적 대중을 형성하기 위한 폐미니스트 운동의 확산과 기존의

고리타분한 정치문화를 혁신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의 결성이라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멕시코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권경득, 「공직 인사상의 여성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박재창 편,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2000.
- 김경옥, 노혜숙, 김영란, 『여성의 정치적 권리인식과 정치참여』, 집문당, 1999.
- 김원홍, 이인숙, 권희안, 『오늘의 여성학』,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성장환 외, 『여성과 정치개혁』, 형설출판사, 1997.
- 손봉숙, 조기숙, 『지방의회와 여성엘리트』, 집문당, 1995.
- 손봉숙 편, 『90년대의 여성정치』, 다해, 2000.
- 이미경, 임혜란, 『한국 여성정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 정치학회보』 35집 2호, 2001.
- 이범준 외, 『21세기 정치와 여성』, 나남출판, 2000.
- 이성형, 『IMF 시대의 멕시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이영애, “한국정당과 여성의 정치참여,” <<http://www.womenvoters.or.kr>>, 2000.
- 전경옥, 노혜숙, 김영란,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식과 정치참여』, 집문당, 1999.
- 한국여성개발원, 『지방의회와 여성유권자』, 1994.
- 한국여성개발원,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1998.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현황,” <<http://www.kwdi.re.kr>>, 2001.
-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강의』, 동녘, 2001.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편, 『여성의 정치화·정치의 지방화』, 1990.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지방의회와 여성후보자』, 1991.
- Bassols, Dalia Barrera, "La participación política de las mujeres en México," e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D.F.: UNAM,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del Norte, 1998.
- Cano, Gabriela, "La construcción de la ciudadana: El sufragio

- femenino según los presidentes Lázaro Cárdenas y Adolfo Ruiz Cortines," *Acta Sociológica* 16, Jan.-Apr., 1996.
- _____, "Una ciudadanía igualitaria: el proyecto de Lázaro Cárdenas," e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D.F.: UNAM,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del Norte, 1998.
- Castellanos, Guadalupe Díaz, "La perspectiva de género en el PRONAM," *Fem.*, August. No. 197, 1999.
- Espinosa C., María Esther, "1916: cuando las mujeres alzaron su voz," *Fem.*, 1998.
- Espinoza Damián, Gisela, "Mujeres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1983-1985," en Alejandra Massolo(coorda.), *Mujeres y ciudades*, El Colegio de México, 1992.
- Espinosa, Gisela, "Participación social a acción ciudadana de las mujeres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en el Valle de México," e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D.F.: UNAM,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del Norte, 1998.
- Fernández Poncela, Anna M., "Los espacios municipales y las mujeres en cifras," *Fem.*, Sep. 1999.
- Guadarrama Olivera, María Eugenia, "Mujeres del movimiento urbano popular: Actuaciones y discurso de género," en Alejandra Massolo, compiladora, *Los medios y los modos: Participación política y acción colectiva de las mujeres*,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1994.
- Mejorada, Cristina Sánchez & Ma. Emilia Herrasti A., *La mujer y la ciudad hacia el año 2000*, México, D.F.: Centro de la Vivienda y Estudios Urbanos, 1999.

- Monsiváis, Carlos, "Palabras de Carlos Monsiváis," *Fem.*, Mar. 1994.
- Peña, Luis Medina, *Hacia el nuevo Estado: México, 1920-1994*,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5.
- Poncela, Anna M. Fernández, "Sebcultura política femenina en México 1," *Fem.*, Jan. 1996.
- PRONAM, *Más mujeres al Congreso*. México, D.F.: Programa Nacional de la Mujer, 1997.
- Randall, Vicky, *Women and Politics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김민정 외 역, 『여성과 정치』, 풀빛, 2000.
- Rojas, Rosa(coorda), *Ciapas ¿y las mujeres qué?*, México, D.F.: Ediciones La Correa Feminista, 1999.
- Sapiro, Virginice, "Research Frontier Essay: When Are Interest Interesting? The Problem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5, No. 3. 1981.
- Sonia del Valle, "Cambiar el viejo régimen y arrebatarle al PRI el poder, meta de Amalia García," *FEM.*, March. No. 204, 2000.
- Staudt, Kathleen, "Mujeres en la política: México en una perspectiva global," en María Luisa Tarrés(coorda.), *Género y cultura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98.
- Stevenson, Linda S., "Las mujeres políticas y la izquierda en México: reclamo de un nuevo espacio en la política institucional," en María Luisa Tarrés(coorda.), *Género y cultura en América Latina*, México, D.F.: El Colegio de México, 1998.
- Tuñón, Julia, *Mujeres en México: recordando una historia*, México, D.F.: CONACULTA(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1998.

Verea, Mónica, "Panorama general de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en Mónica Verea & Graciela Hierro, *Las mujeres: en América del Norte al fin del milenio*, México, D.F.: UNAM,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del Norte, 1998.

<<http://www.cen-prd.org.mx/secretarias/mujer/jornada/JORNADANAL.html>>.

IPU, <<http://www.ipu.org>>

INEGI, <<http://www.inegi.gob.mx>>

Resumen

A Study on the Promoting Political Representation of Mexican Women

Kang, Kyeong-hee

El objetivo central del presente artículo es analizar y reflexionar sobre cómo es el proceso del movimiento feminista mexicano en relación con la participación política, así como indagar cómo las mujeres mexicanas gozan actualmente de más representación política que nunca antes, a pesar de la existencia de la cultura política machista, el ambiente política del régimen autoritario, la situación económica de un país menos desarrollado y su historia del colonialismo entre otros.

Con este fin, este trabajo explora la relación entre la participación política de las mujeres mexicanas y el proceso del movimiento de las tres formas del feminismo mexicano: el liberalista, el socialista y el radical.

De ahí se explican los elementos para poder avanzar la participación política en México a partir de la década de 1990, los cuales son la articulación de los movimientos feministas mexicanas con el movimiento urbano popular y el del PRD (Partido de la Revolución Democrática), el efecto proliferado de la política en favor de mujeres del PRD y la política de pro-mujeres de los gobiernos de Salinas y Zedillo.

El argumento principal de este artículo es lo que ha tomado un

papel muy importante el activismo armónico de tres movimientos feministas distintos con el objeto de resolver el problema de la baja representación política de mujeres en México.

Esta experiencia de México presentará algunas ideas y reflexiones para los países subdesarrollados o menos desarrollados en donde se encuentran en la baja representación política de mujeres.

Key words :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on),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ist Feminism),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